

# “광양에 투자하세요” 글로벌 마케팅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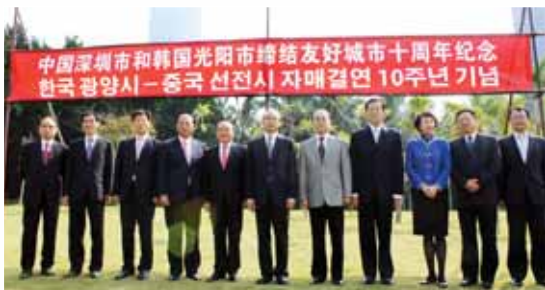
광양시가 광양만권 및 광양항 배후부지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마케팅’에 나섰다. 광양시는 27일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광양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국제 자매도시 중국 선전시와 국제우호도시 인도네시아 짚레곤시를 연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국제교류 증진과 더불어 투자유치, 광양항 물동량 창출에 총력을 쏟았다. 정현복 시장도 최근 해외 자매·우호도시들을 방문하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친 결과 많은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중국 첨단기술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인도네시아 짚레곤시와 간담회



중국 선전시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 市, 중국 광둥성 4개 업체와 투자 양해각서 체결 인도네시아 코린도·JSK 그룹과 운송·물류 협약 지역기업 해외진출 돕고 외국기업 투자유치 총력

중국 선전시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수 및 표지석 제막 행사, 관광교류 실무협약 체결 1건, 투자양해각서 3건을 체결하고 선전시 첨단기술박람회장 광양시 홍보부스 설치했다.

중국 선전시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운영한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민간인 교류,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예술 공연 등의 교류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광양시와 선전시간 관광교류 분야를 확대기로 실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 선전시 중앙공원에 선전시 63개 국제 자매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기념식수를 하고, 중국 광둥성 지역 원자재업체 4개사와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시장은 또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실무협약 2건, 2개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투자유치 설명회 및 광양항 홍보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짚레곤시에서 현지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체 대표 간담회 자리에 아리야 짚레곤시장을 비롯해 반든주 해군부 대장, 검찰총장, 경찰서장 등 100여 명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어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광양항 홍보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 기업체 및 해운·물류회사, 언론사 대표 등 40여명 참석해 광양항 이용과 배후단지 투자유치 홍보에 나섰다.

특히 연간 조강생산능력 300만톤의 크라카타우 포스코 제철소를 방문해 사업추진현황을 살피고, 짚레곤시와 상호투자 활성화 및 협력 가능한 분야를

찾을 계획이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한인기업인 코린도 그룹의 승은호 회장,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신기업 회장, 크라카타우 포스코 민경준 사장, 인도네시아 제1의 벌크선사인 JSK그룹 장상규 CEO, 엘리트 그룹 장경철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20위이며 최대 한인기업인 코린도 그룹 및 인도네시아 제1의 벌크선사인 JSK그룹과 광양항 이용 관련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광양항 물동량 창출에 청신호를 밝혔다.

코린도 그룹은 우드펠릿 수송 벌크 선박과 합관을 일본과 중동에 수출(연 36만CBM), 기타 한국-동남아 화물의 광양항 정기선적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JSK그룹은 니켈, 석탄, 해양 플랜트 등 자원개발 및 운송, 물류사업에 대해 광양항을 적극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인도네시아에는 2200여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경제성장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어 이곳에 진출한 유수 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광양항을 홍보했다.

이번 투자유치로 광양시의 경제·문화적 영토 확장을 위한 국제교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해외진출 지원 및 투자유치, 광양항 물동량 유치에 활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현복 시장은 “인구 2억5000만명인 포스트브릭스(Post-Brics)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활발한 교류는 인기 내 154개 기업유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와 관광교류를 통해 광양만권 활성화를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익신·초남리 하수관거 정비 탄력 국비 27억원 추가 확보

광양시가 광양읍 익신·초남 하수관거 정비 예산 국비 27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사업 구역인 초남분구는 광양읍 익신리, 초남리와 초남산단 일원으로 300여세대 지역주민과 40여개 공단입주업체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시는 환경부에서 사업 승인된 초남분구 하수관거 정비는 당초 사업비가 69억원이었다. 하지만 연약지반 처리와 하수관이 초남대교와 하천을 횡단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광양시는 환경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비 증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후 국비 등 27억원을 추가 증액함으로써 총 사업비가 96억으로 환경부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익신·초남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96억여원을 들여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말 준공예정인 하수관로 12.7km 배수설비 340개소를 정비하여 미분류된 하수관을 오·우수로 분류식화하여 광양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게 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광양시가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광양읍 용강4길 용강빌딩 2층)’를 개소했다.

27일 문을 연 ‘광양시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어린이들의 연령별 맞춤형 식단 정보제공과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위생관리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급식관리수준 평가 등의 업무를 원형하게 된다.

그동안 광양시는 2017년 9월말까지 위탁 운영할 기관으로 지난 10월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하고, 운영기관은 위탁협약 체결 후 준비 과정을 거쳐 센터장 외 8명 3개팀(위생팀, 영양팀, 기획운영팀)을 구성했다.

이에 센터는 연간사업비 3억 6000만원(국비50%, 도비25% 시비25%)을 투입하여 관내 106개소 5,400여명의 수혜대상자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예정이다.

/광양=박영진 기자 pyj4079@

## 광양경찰, 탈북민들 안보현장 견학

광양경찰서(서장 장효식)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김석기)가 탈북민에게 남한 사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 30여명이 제주도 안보현장 견학 및 문화탐방에 나섰다.

이들은 22일부터 1박2일간 제주도 4.3평화기념관 및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성산일출봉 일대 등 제주도 지역의 다양한 문화 체험과 몽골 기마공연을 관람했다.

탈북민 박모(37세, 여)씨는“이번행사로 남과北 분단의 배경 등 역사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행사를 마련한 광양경찰서와 광양시, 보안협력위원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오산	571-7658
양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진철	673-1600
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하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